

주요소식



“에너지 대전환을 향해” 2022 국제그린해양플랜트 전시회 성료

선보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벅스코에서 개최된 ‘2022 국제그린해양플랜트 전시회(GREEN&

OFFSHORE KOREA 2022)’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업계의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대

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기존의 ‘국제 해양플랜트전시회’에 친환경 해양에너지 분야가 더해진 새로운 형태로 개최됐다. 조선업계가 직면한 친환경 이슈에 발맞춰 탄소저감 기술을 통한 전통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동시에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응 기술 및 대체 에너지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석유에서 그린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전시에서는 국내 조선 BIG3를 비롯해 수소 추진 실물 선박을 선보이는 강소기업이 다수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선보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주력 품목인 FGSS·수전해(PEM 방식)·CCUS·태양광 셀·폐기물 열분해(복합가스 생산) 시스템을 출품했다. 선보 엔젤파트너스의 투자 가속화 전략과 선보 패밀리 EPC 사업화 지원 체계를 비롯, 에너지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가스 밸류 체인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11개국 154개사가 400부스의 규모로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3일간 총 9,986명의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해양플랜트 산업이 해양강국을 위한 포기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임을 방증했다. 이밖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GOMP)’와 세미나 등으로 알차게 꾸러진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구가 막혔던 업계 간 교류를 재활성화하고, 그린해양플랜트 기술의 방향성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소식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미래를 그린다 - 선보엔젤파트너스 ‘Connecting Dots’ 개최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지난 13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Connecting Dots’를 개최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국내 대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전통 제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를 연결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해왔다. ‘Connecting Dots’는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여러 개의 분산된 점이 이어져 선을 이루듯 산업 간 융합과 연결을 통한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선보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이날 오후 Pre-Show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최영찬 대표와 선보엔젤파트너스 오종훈 대표의 자사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과 미래 전략 발표가 첫 순서를 장식했다. 이어 ‘ESG 투자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축과 새로운 도전 분야를 소개하는 선보유니텍과 카본밸류·프런티어에너지솔루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행사의 대미로 꼽히는 디너 및 네트워킹 시간에는 선보엔젤파트너스가 투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인연엔터테인먼트의 특별한 콘서트가 마련됐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경



제 협력을 논했던 역사적 공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경영 목표와 투자 역량 강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다. ‘연결의 힘’을 지향하며 남다른 시장 감각으로 스타트업 발굴과 혁신을 지원하고 글로벌 무대로 견인하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회사소식

**국내 최초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착수**

선보유니텍이 청정 제주에서 시작하는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뛰어들다.

최금식 선보유니텍 회장은 지난 9월 29일 제주 CFI 미래관에서 개최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및 생산 설비 실증 착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국내 최초 10MW급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및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조성될 12.5MW급 수소 발전단지는 가동률 60% 기준 연간 1,176톤의 수소를 생산을 목표로 하며, 생산된 수소는 그린에너지 전환을 계획 중인 제주시 청소차 200여 대와 시내·외 버스 300여 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선보유니텍은 국내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과 수소 밸류 체인을 형성, 산학 공동 연구와 개발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참여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소식

**'문화사랑K프렌즈', 기업탐방
일환으로 선보공업 방문**

문화사랑K프렌즈(이하 K프렌즈)가 기업탐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오후 선보공업 본사를 방문했다.

K프렌즈 이경신 회장과 KNN 이오상 대표를 비롯한 회원 40여 명은 선보공업 대대2공장에 도착해 공장 내부를 견학하고 LNG 실증설비 운용 체계를 확인했다. 이후 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교육장으로 이동해 회사 소개 및 선보 Family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금식 회장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K프렌즈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예술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문화상생 프로젝트를 개발·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한 공익적 성격의 사단법인이다.

선보 Family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영암 스크린골프 동호회

<SUNBO NEWS> 10월호에서는 완연한 가을을 맞아 "대세 스포츠인 골프의 입문 단계로서 이만한 활동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공언하는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의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1. 스크린골프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은 직영 7명과 협력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직영-협력사 회원 간의 공통 취미인 골프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창단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스크린골프 모임을 갖고, 스크린골프 대회 개최와 더불어 연 1회 이상 필드 모임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동호회의 특징점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창단 초기에는 고수 회원과 '골린이(골프+어린이)' 회원의 실력 차가 컸으나, 회원 간 적극적인 골프 레슨 정보 공유 및 조언, 소모임 등을 통해 골프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크린 언더파, 필드 싱글 플레이어 등 상당한 실력을 갖춘 회원도 많습니다.

3. 동호회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스크린골프 모임만 하다가 처음으로 단체 필드 모임을 가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여기저기 샷 실수에 뛰어나기 바쁘고 공도 많이 잃어버리고 스코어도 엉망이었지만, 즐거운 표정과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로 즐겁게 라운딩하던 회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의 즐거운 추억 덕분에 연 1회 필드 모임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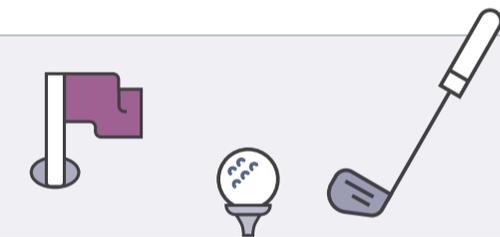
4. 현재 선보는 복지수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회 활동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스크린골프 동호회에서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약 2년간 코로나19로 정기 모임을 갖지 못하다 지난 5월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 12명의 그린 피를 지원받아 부담 없이 라운딩도 즐기고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정도로 지원이 확대된다면 좋겠습니다.

5. 앞으로 확대해가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창립 취지에 맞게 골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것



이 목표입니다. 선보에는 골프동호회가 2개인데, 기회가 된다면 합동 대회도 열어보고 싶습니다.

6. 우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극적인 참여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릴 많은 모임에도 열띤 관심 부탁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우리 동호회는 직영-협력사, 고수-하수의 구분과 제약이 없습니다. 골프에 관심 있고 참여 의지와 적극성을 갖춘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인터뷰=스크린골프 동호회 회장 겸 총무
선보하이텍(주) 오세준 책임(설계팀)

회사소식

현대엔지니어링-선보유니텍 친환경·에너지 신사업 및 플랜트 모듈 분야 MOU 체결



선보유니텍이 지난 7일 현대엔지니어링과 친환경·에너지 신사업 및 플랜트 모듈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설비 모듈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수전해 시스템 ▲태양광 ▲이산화탄소 포집 ▲플라즈마 가스화 등의 신사업 분야 공동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인 SMR과 플랜트 모듈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신(新)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은 기존 원전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크기로 건설 기간이 짧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도 장소에서 플랜트 모듈을 제작해 건설 현장으로 운송하는 모듈화 방식 또한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선보유니텍은 이밖에도 쓰레기 소각과 전기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플라즈마 활용 폐기물 가스화 사업 등 친환경 신사업 분야를 다방면으로 확장해나갈 전망이다.

회사소식

선보공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인증 사업 공모는 능력 중심 인재 채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지속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선보공업은 중소기업 최초 가족친화기업 선정에 비롯해 여성가족부 '가족사랑대상' 수상 등 가족친화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온 것이 이번 선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보공업이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선보공업은 인증 기간(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각종 기업지원 제도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회사소식

'아차사고 발굴' 우수사례 선정

선보는 지난 9월 한 달간 선보 Family가 발굴한 아차사고 중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9월 28일 열린 수여식에서는 ▲이명호 기감(HSE) ▲최예원 선임팀장(출하 준비) ▲장형구 기원(계장반) ▲한승진 선임(생산관리) ▲조경선 기원(자재지원) ▲김기주 선임팀장(자재지원) ▲이성삼 팀장(자재지원) 등이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차사고 발굴은 작업장 내 잠재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자율 안전 신고 활동을 말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무상해 사고를 가리키며, 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발생일과 장소, 내용 및 원인, 조치사항(안전대책) 등을 생산관리팀 또는 HSE팀에게 메신저로 전달하면 된다. 선보는 월별 아차사고 발굴 횟수를 지속적으로 집계하고 인센티브에 반영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회사소식

아름다운 부산과 우리, 어때요? - 선보 Family 사진 공모작

선보는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선보 Family를 대상으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인생샷'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접수된 공모작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사진으로, 모든 참여자에게는 추후 발간될 사단법인 문화도시네트워크의 화보집을 2권씩 증정해드립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태풍이 지나간 후 더욱 맑아진 가을날.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들과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박정현 선임

송도 해상케이블카와 용두산공원

서구에는 명물이 많죠. 발밑으로 바다가 보이는 송도 케이블카를 타고 용두산공원 꼭대기 전망도 감상했습니다.

유병창 책임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 속 물고기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마치 바닷속에 들어간 듯 가까이 보여 너무 좋았어요.

이준희 선임

다대포 해변공원과 해운대식물원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해변공원의 야경과 숲속을 신나게 달리기 좋은 해운대식물원입니다.

장철민 책임

회사소식

신규입사자

지난 9월 2명의 신규 입사자가 선보 Family에 합류했다. 그간의 직무 경험을 오롯이 쏟아부어 선보의 핵심 인재가 되겠다는 김동훈 선임(설계1팀)과 이창석 선임(전계장설계팀)의 당찬 포부를 응원한다.



김동훈 선임 / 설계1팀

지금까지 쌓아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역할에 역량을 발휘하여 저의 전문 지식과 설계 업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선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창석 선임 / 전계장설계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더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감각을 발휘해 설계 분야에서 선보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